

탈핵을 말하고(言) 함께 실천하는(行)

“言行일치”



K-090
최영 Choi, Young (1316 - 1388)



탈핵한국을 빛낼 100명의 WE인



두 번째 탈핵言

“핵발전소 대용량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!”

핵발전 전기가 생산-송전-소비지로 오기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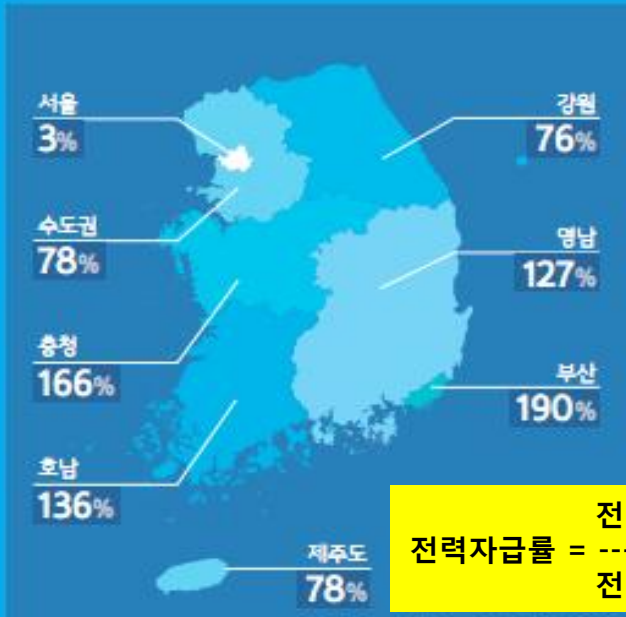


두 번째 탈핵言

서울-수도권 전력소비량이 문제!

서울의 전력자급율은
3%에 불과합니다.

우리나라 지역별 전력자급률 현황



$$\text{전력자급률} = \frac{\text{전력생산량}}{\text{전력소비량}}$$

서울시 인구비율 : 20%

• 1000만 : 5000만(명)

서울시 전력소비량 : 10%

• 4만7천 / 45만5천(Gwh)

서울시 전력생산량 : 0.3%

• 1천3백 / 49만6천(Gwh)

서울시 전력자급률 : 3%

• 1천3백 / 45만5천(Gwh)



두 번째 탈핵言

“태양과 바람과 숲의 탈핵한국으로 가는 길”

절전소 + 신재생에너지



전력자급을 높이기



원전하나 줄이기

큰 격차의 지역 전력 자급을



늘어나는 장거리 송전



밀양 초고압 765kV 송전탑

어떤 길로
걸어가시겠습니까?



두 번째 함께行

“정수기 코드를 뽑아서 원전하나 줄이기?!”

이러고 있지는 않나요?

- 필터처리방식 가정용 정수기는 수돗물 압력을 통해 정수
- 정수 기능과 관계없이 냉온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
- 야간과 휴일에 버려지는 소비전력량 70%(UV정수기 제외)

이렇게 해볼까요?

- 가급적 밤에는 코드 뽑아두기
- 차가운 물은 이미 24시간 가동되는 냉장고 이용하기
- 온수 기능 끄고 필요할 때마다 끓여마시기





두 번째 함께行



아이들에게
물려줄 지구
우리가 열심히 지키기
위해 에너지 절약에
동참하고 싶어요~
무시무시한 핵발전소
위험을
우리 아이들에게
물려주고 싶지는
않아요.

오은하 회원님 가족

핵없는 안전한 세상!

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!

함께 모여 실천하면 곧 현실이 됩니다.

녹색은 생활입니다. 절전이 발전입니다.

우리모두는 녹색연합을 믿습니다

녹색연합 화이팅!

